이론 40%·실습 60%…농업기술 익혀 자립의 길로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② 식량 자립의 꿈 일구다

594명 농업인재 키운 실무형 교육 눈길
농업·원예·동물보건 등 3개 과정 운영
관개·온실·축산·식품가공 등 현장 중심
취업·창업·진학…지역 농업기술 전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보리가람에서는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선명상 등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법인처장 선정 스님과 학생들이 선명상 후 차담하는 모습.

◀ 보리가람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실습 중심에 있다. 학생들은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보리가람의 하루는 일반적인 대학 수업과 다르다. 동물보건 및 생산 과정 학생들은 오전 6시부터 착유와 청소, 가축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농업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는 기술이다. 농기계에 대한 이해와 실습도 수업에서 빠질 수 없다.

탄자니아에서 농업은 삶과 가장 가까운 산업이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된다.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은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전문기술을 익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농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2016년 57명의 첫 입학생으로 시작한 보리가람은 올해 제8회 졸업식까지 5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농업·원예·동물보건 및 생산 분야를 공부하고 이론보다 현장 실습에 비중을 둔 교육을 받는다.

현재 보리가람은 △농업생산(Agriculture Production) △원예(Horticulture) △동물보건 및 생산(Animal Health and Production)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과정으로, 1학년 기초기술자격(Basic Technician Certificate), 2학년 기술자격(Technician Certificate), 3학년 일반 디플로마(Ordinary Diploma) 과정으로 이어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도 달라진다. 첫해에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기술을 익히고 2학년에는 생산에 필요한 실무와 현장기술을 습득한다. 3학년에는 현장 운영과 일상 업무뿐 아니라 관리·감독 역량까지 공부한다. 이론과 실습 비율은 40 대 60으로 학생들이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폭넓게 익히도록 구성됐다.

밭과 축사가 교실…현장에서 익히는 농업기술

보리가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안에 마련된 농장과 온실, 축산시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작물 재배부터 관개, 병해충 관리, 수확, 축산과 가축 질병 관리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

보리가람의 하루 역시 일반적인 대학 강의실 수업과는 다르다. 동물보건·생산 과정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착유와 축사 청소, 가축 건강상태 점검 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후 이론과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가축 치료나 농가 지원 활동에도 참여한다. 농업생산과 원예 과정에서는 관개시설 점검 및 설치, 작물 생육 관찰, 관수, 제초, 토지 정리, 보식, 수확, 병해충 관리 등을 익힌다.

학생들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학기 중 수확한 농산물은 학생들의 급식 부식으로 활용하고 방학 중 생산된 농산물은 재래시장에 판매한다. 판매수익은 다시 농장 개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물을 학교 구성원의 식생활과 시장에 활용하며, 판매수익을 다시 농장 운영에 투입하는 구조다. 농업교육과 생산활동이 분리되지 않는 이유다. 학생들에게 농업은 '배워야 할 과목'이면서 동시에 직접 생산하고 수익을 만들어보는 경제활동이 된다. 학과별 현장 견학도 학기당 두 차례 진행된다. 농업연구기관과 농업기업, 조경업체 등을 찾아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변하는 농업환경 맞춰 교육과정 개편

보리가람은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량기반교육훈련(CBET)을 적용해 학생들의 실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노동시장,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도 세 차례 개편했다. 교수진 역시 관련 분야 학사·석사 및 공학·수의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졸업 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업생들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취업을 비롯해 농업 관련 사업, 농자재·동물의약품 분야, 묘목·조경사업, 고등교육 진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농업정보를 공유하거나 마을 농업지도·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조용진 보리가람 지부장은 "교육을 통한 자립이라는 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됐다"며 "졸업생의 80% 이상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도우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리가람 교육의 의미에 대해 "농업을 계속할 것인지, 취업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 고등교육을 이어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넘어 만나는 한국불교

보리가람의 교육환경은 한국불교계의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무상교육을 비롯해 전기와 물 등 필수 서비스, 교육 기자재, 축사와 온실, 인터넷 등 농업 기반시설, 우수한 강사진과 체육활동 등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됐다.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불교를 접할 기회도 제공된다. 조계종은 법인처장 스님을 파견, 학생들이 불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 법인처장 선정 스님은 선명상 시간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교에 귀의한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기보다 학생들이 자신이 접해온 종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자신의 삶에 맞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 넘어 선택할 수 있는 힘 키운다"

보리가람은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출발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취업과 창업,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농업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관개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정책의 현장 적용과 법·제도 개선도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교육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졸업생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과제다.

식량 자립을 위한 기반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불교의 지원으로 시작된 보리가람의 교육은 이제 농업기술과 자립을 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

"보리가람에서 배운 농업, 탄자니아의 미래 될 것"

에릭·아마니 동국대 유학생

보리가람 졸업 후 한국 유학
환경·식품공학으로 배움 확장
"고국 농업 발전 보탬 되고파"

보리가람에서 농업을 배운 두 청년이 한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에릭(28·사진 왼쪽)과 아마니(26·사진 오른쪽)는 보리가람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 와 동국대에서 각각 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전공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다.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기술을 익혔던 보리가람에서의 3년이다.



농업고를 졸업한 에릭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에 보리가람에 입학했다. 2021년 졸업 후 2022년 한국에 온 에릭은 한국어학당을 거쳐 2024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에 입학했다. 현재 3학년으로 온실가스(GHG) 관리와 ESG, 탄소중립, 환경공학 등 환경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보리가람에서의 학교생활을 묻자 에릭은 '10점 만점'을 꼽았다. 일상생활은 물론 졸업 후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보리가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 실습이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입학 전과 달리, 농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농사를 경험하면서 농업을 배우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리가람에서 시작된 에릭의 배움은 이제 농업에서 환경과학으로 영역을 넓혔다. 농업 역시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농업기술에 환경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더해 농업과 환경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싶다는 것이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환경과 농업을 연결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보리가람에 입학해 2023년 졸업한 아마니는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활용으로 관심 폭을 넓혔다. 처음에는 농사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리가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업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니는 "3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돌봤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 수확하기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배웠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험도 쌓았다.

아마니 역시 보리가람 생활에 '10점 만점'을 줬다. 아마니는 "농업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심과 협동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면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끈기와 성실함을 익혔고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말했다.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한 것도 농업에 대한 배움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보리가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싶었다.

2023년 12월 한국에 온 아마니는 2025년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에 입학했다. 미생물과 효소,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식품의 안전성과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하면서 농업과 식품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며 탄자니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과 저장, 식품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니는 "탄자니아에는 수확한 농산물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공하고 저장하는 식품 보존 및 생명공학적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탄자니아에 가져가 농부들이 힘들게 키운 작물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더 배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다시 탄자니아로 향한다.

에릭은 환경과 농업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 보리가람에서 익힌 농업기술에 환경과학 전문성을 더해서 탄자니아 농업이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게 목표다.

아마니는 식품생명공학과 농업기술을 접목해 탄자니아 농가의 생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식품으로 개발·유통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한다. 공부를 마친 뒤에는 탄자니아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식품공학을 잇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사람에게 보리가람은 단순히 농업기술을 배운 학교가 아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새로운 진로와 미래를 꿈꾸게 한 출발점이다.

아마니는 보리가람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탄탄한 농업의 기초뿐 아니라 끈기와 성실함, 자립심과 자신감을 배웠고 지금의 식품생명공학자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도 보리가람에서 얻은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에릭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에릭은 "훌륭한 도덕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오랜 기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종과 불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며 "더 배우고 경험해 그 배움을 탄자니아의 농업과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고양=임은호 기자

